

소규모 고령자 그룹홈의 생활환경 실태조사

Actual conditions on the Living Environment of Small-scale Group Homes for the Elderly

김현진* 이경락** 안옥희***
Kim, Hyun-Jin Lee, Kyeong-Lark An, Ok-Hee

Abstract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n the living environment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and their living environment, 4 group homes were surveyed. As the results, while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group home was entirely satisfied, the safety for criminal prevention, accessibility and convenient facilities were not satisfied in addition to relatively narrow living room. Space safety for elderly people was not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hysical environment.

키워드 : 소규모 고령자 그룹홈, 생활환경

Keywords : Small-scale group home of the elderly, Living environment

I.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3% 정도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될 것이고 2026년에는 20.8%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05). 또한 고령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자끼리 생활하는 고령자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전체 고령자 가구 중 고령자 단독가구는 1990년에는 25.8%에서 1995년 36.6%, 2000년 44.9%로 증가되었다(통계청, 2005). 즉 고령인구의 증가가 고령자 단독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 단독가구에 대한 생활환경학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자들은 특별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생활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고령자주택의 생활환경은 평범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일부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박재간, 2002). 만약 고령자주택이 주변과 격리된 환경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대판 고려장」에 불과하고 고령자는 좁은 공간 속에 갇혀진 생활을 강요받게 된다. 이는 고령자 주거환경은 생활환경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령자주거는 실제 생활하는 고령자들의 의견과 요구의 반영이 배제된 채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즉 이러한 문제점들을 되도록 많이 감안하면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창출해내야 한다. 고령자는 노후에 시설주거보다는 살던 곳에서 그냥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며,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가사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원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주거 유형이 아닌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규모 고령자 그룹홈은 종래의 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제까지 살아오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지역 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거주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고령자 그룹홈의 생활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고령자 그룹홈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고령자 그룹홈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 4곳을 대상으로 공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그룹홈의 개요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예비 조사는 조사내용의 구성과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생활과학박사
**정희원, 영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학술박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보완한 설문지와 실측지를 이용하여 2005년 8월에 본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을 한 조사원 2명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실측지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김현진, 1999)를 바탕으로 주택전반에 관한 14개 문항, 실내공간에 대한 189문항, 총 20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M), 표준편차(SD) 등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표 1. 그룹홈 시설 개요

	○그룹홈	ㄱ그룹홈	ㄴ그룹홈	스그룹홈
관리유형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설립년도	1997년	2000년	2004년	1998년
위치	경상북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농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농업지역
주택구입형태	매입	매입	매입	매입
주택형태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거주자수	5명	3명	8명	10명

III. 결과 및 분석

1.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특성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입지조건과 주택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택의 입지조건 중 안전성은 조사대상 그룹홈 모두 파출소나 방범초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범의 안전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3개의 시설은 철로나 대로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1개의 시설은 철로와 국도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주택의 방위는 3개의 시설은 남향이였으며, 나머지 한 개의 시설은 동향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통의 편리성과 근린시설 이용의 편리성 모두 1개의 시설만이 충족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개의 시설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근린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적성 항목인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그룹홈의 대부분이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근린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불만족하나 공원이나 녹지의 확보에 대한 쾌적성 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 그룹홈의 주택형태는 계단의 사용이 필요 없는 단층주택이 2곳, 2층 이상이 2곳이었다. 그러나 2층 이상의 공간은 주로 운영자가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거주자의 사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당은 모두 있었다. 이는 전명숙(1994)의 연구에서 노후 주거환경에 있어서 정원시설의 중요성이 84.5%로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고령자주택에 있어서 고령자의 취미생활 및 옥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룹홈과 같은 시설주거의 경우라도 반드시 마당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난방방식은 모두 중앙난방방식이었는데, 이것은 고령자의 온열환경에 있어서 쾌적성과 항상성을 만족시켜주는 중앙난방방식이 적합하다(박태환, 1996)는 이론에 의하면 바람직한 결과이다. 난방 종류는 기름보일러를 3곳에서 사용하였으며, 1곳은 심야전기와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었다. 심야전기나 태양열은 초기설치비용은 비싸나 운영비용은 매우 저렴하므로 그룹홈과 같은 시설주거에서는 그 설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김현진 외, 2006)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은 연료비이며, 보조금 지원 역시 연료비 지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야전기나 태양열 이용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심야전기 사용이나 태양열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 생활공간의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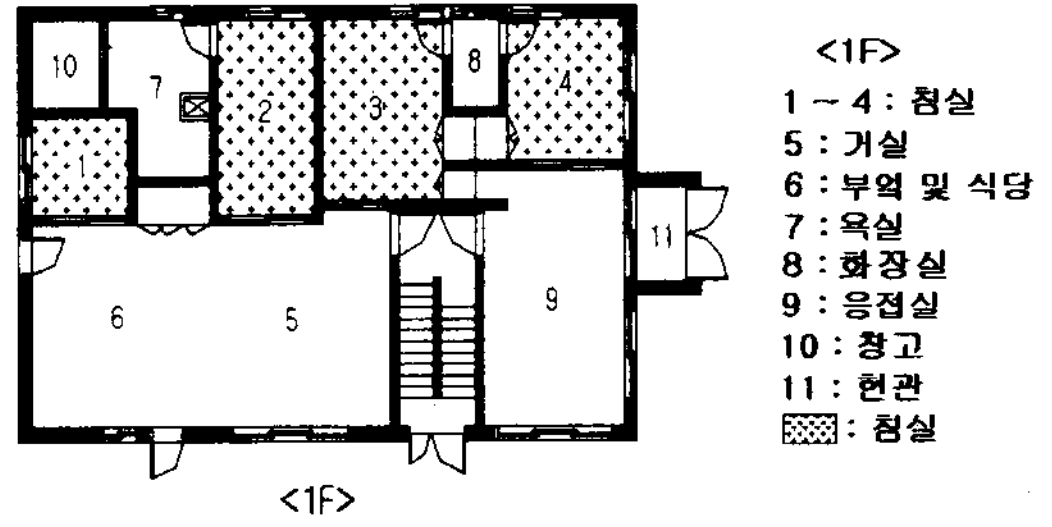
○그룹홈(그림 1)은 2층 주택으로 각 층별 주출입구는 따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거주자가 생활하고 2층은 운영자 가족이 생활한다. 1층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침실 5개, 거실, 부엌, 욕실 2개,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자들은 1인 1실의 개인실을 사용함으로써 거주자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공간배치는 거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침실과 부엌, 욕실은 외벽에 면하여 있다. 이로 인해 개인실에서 거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개인실에서 욕실이나 부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공용공간인 거실을 지나쳐야 하는데, 이는 공용공간에서의 거주자들의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배치이다. 또한 평면을 살펴보면, 전체 공간에 대하여 개인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며, 욕실도 2개가 있어 개인공간 영역이 넓다.

ㄱ그룹홈(그림 2)은 단층주택으로 본관에는 거주자가 생활하고 별관에는 운영자 거주공간과 부엌 및 식당이 있다. 거주자가 생활하는 본관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침실 5개, 거실 2개, 욕실 2개, 샤워실, 물리치료실, 현관, 그 외의 기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자 수에 비하여 공간이 넓어 매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간배치는 거실이 중앙에 위치하며, 각 개인실이 거실 쪽으로 열리게 배치되어 개실에서 거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욕실은 좌측과 우측에 나뉘어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어느 방향에서든 욕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주출입구인 현관의 배치와 규모가 타 그룹홈과 다른데, 이는 그룹홈이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와 내부공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ㄴ그룹홈(그림 3)은 3층 주택으로 1층과 2층은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3층은 운영자가 생활하고 있다. 1층과 2층의 공간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1층은 침실 4개, 거실, 부엌 및 식당, 사무실(응접실), 욕실 2개, 현관, 창고 등으로 구성되며, 2층은 침실 3개, 거실, 부엌, 욕실 2개, 샤워실, 상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ADL의 자립도가

높은 거주자는 침실이 2층에 있고 대부분의 거주자 침실은 1층에 있다. 공간의 배치형태는 1, 2층 모두 침실은 후면에 배치되어 있고 거실, 부엌 및 식당, 응접실 등의 공용공간은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욕실 및 화장실의 접근은 고령자의 침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출입구인 현관에서 내부공간으로의 접근은 사무실(응접실)과 계단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외부에서의 접근은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내부는 개방적 구성형태이다.

스그룹홈(그림 4)은 단층주택으로 운영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없이 거주자와 운영자가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침실 8개(거주자 5개, 운영자 3개), 거실 2개, 욕실 2개, 부엌(현관의 역할도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의 배치는 거실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침실과 부엌, 욕실이 외벽에 면해 있다. 거주자 수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방(1~4)과 거실(6), 욕실(9) 부분을 증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선의 흐름에 있어서 기존 공간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우며, 연결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 또한 동선의 시작인 현관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엌의 입구가 주출입구의 역할을 함으로써 공간의 영역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1F>

그림 3. 비그룹홈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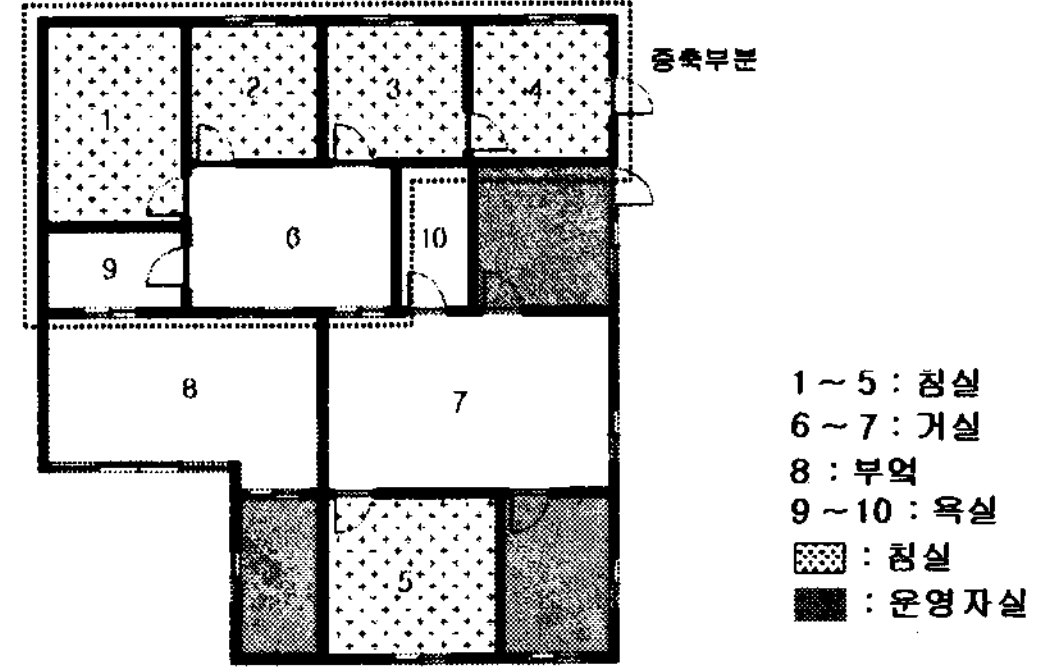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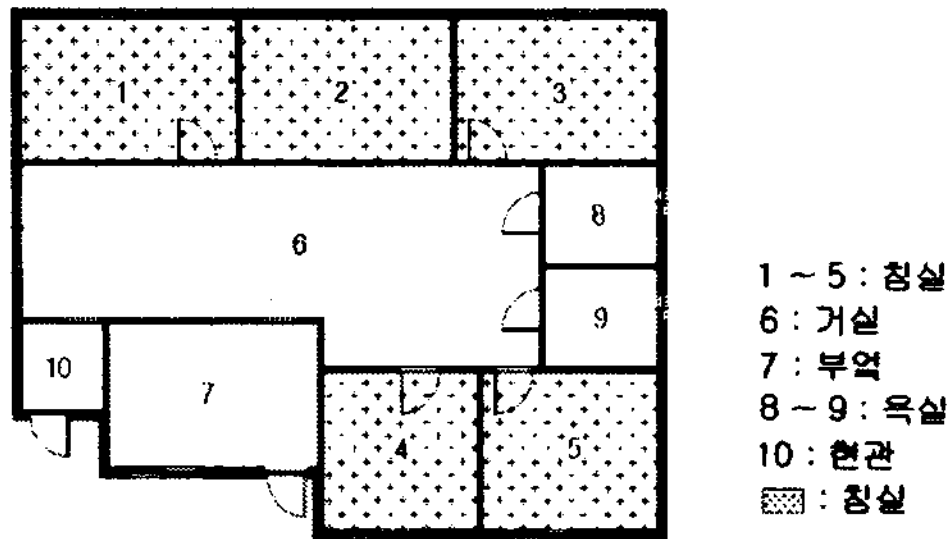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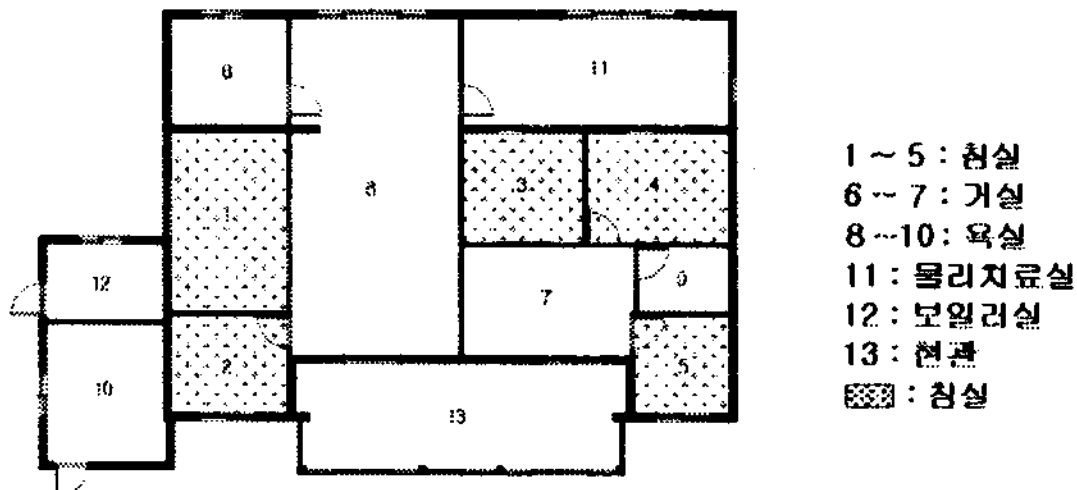


그림 4. 스그룹홈 평면



<1F>

그림 1. 스그룹홈 평면



<현관>

그림 2. 스그룹홈 평면

3. 생활공간의 면적

개인실(침실)의 평균 면적은 11.21㎡로 나타났으며, 거실은 28.13㎡, 부엌은 23.59㎡로 나타났다. 개인실의 경우, 고령자주택의 일반적인 기준인 8~10㎡(小室豊允, 1992; 최영배, 1993)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실의 경우, 다른 주거유형에 비하여 고령자주택에서는 전체 면적에서 거실의 비율이 40~50%로 큰 편이지만(양세화 외, 2003), 본 조사대상의 거실은 전체 면적의 21.2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협소하였다.

또한 부엌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에 부엌이 차지하는 비율이 8.91%로 나타나 공용공간인 거실과 부엌의 경우 적정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사교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고령자에게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김혜정, 2000)할 수 있는 공간인 거실과 부엌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앞으로의 고령자 그룹홈 계획에는 공동생활공간의 적정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욕실의 경우 화장실과의 통합형으로 평균 면적은 7.63㎡이었다. 이는 욕실의 적정면적인 3㎡(안옥희 외, 2002)을 충족시키며, 특히 개수도 2~3개로 그 면적뿐만 아니라 개수도 충족하였다. 그러나 독립된 화장실은 비그룹홈에만 있었으며, 평균 면적도 2.74㎡로 적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자립도가 높은 건강한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신체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이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장실의 크기는 매우 중요하며, 그 개수 또한 개인실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실의 경우 시설 수와 면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 공간별 물리적 환경

1) 침실

침실의 출입문 폭은 평균 1236.0mm로 일반적인 규정(900mm)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입문의 형태에 있어서 미닫이도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출입문의 형태는 안여닫이(64.0%) 또는 미닫이(32.0%)로 나타났다. 출입문의 폭이나 형태는 이동의 용이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폭은 900mm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형태는 미닫이가 가장 좋으므로 고령자 그룹홈 계획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조사대상의 경우, 출입문의 폭은 양호하나 형태는 여닫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문손잡이의 형태는 노브형(door knob)이 6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령자주택의 문손잡이는 조작이 쉬운 레버형(lever handle)이 좋다는 선행연구(佳田昌二, 1990)의 결과를 고려할 때, 문손잡이 형태의 개선이 요구된다. 문손잡이의 평균 높이는 889.6mm로 나타나 적정높이 900mm보다 조금 낮다. 이는 높으면 문제가 되나 약간 낮은 것은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64.0%가 문지방이 존재했으며, 문지방의 평균 높이는 37.8mm로 나타났다. 문지방이 있으면 고령자가 이동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령자의 주거내 이동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계획되어지는 고령자 그룹홈에서는 문지방이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 수는 1개가 88.0%로 나타났으며, 평균 면적은 2.04m²이다. 창틀의 평균 높이는 바닥에서 809.6mm 높이의 허리벽 위치에 창이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가 의자에 앉은 자세가 아니면 밖을 볼 수 없을 만큼 높다. 실제로 고령자들은 생활에서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보다는 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을 주로 행하므로 전통주택의 창호 높이와 같은 바닥에서 45cm 정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원의 수는 2개(67.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원의 종류는 형광등(56.0%)과 삼파장(44.0%)으로 나타났다. 스위치의 형태는 일반형이 72.0%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파일럿램프(pilot-lamp) 부착형은 28.0%에 불과하여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위치의 평균 높이는 1091.8mm이다.

침실의 비상벨은 모든 시설에서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지지대는 76.0%가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침실에서 안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고령자의 경우 침실에서 장시간 지내므로 방 안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외부나 동거인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이루어져야하므로 고령자 개실 계획시에는 비상벨의 확보 등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거실

거실의 출입문은 현관문을 겸하고 있으며, 폭은 평균 1674.4mm로 일반적인 규정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실의 출입문이 그룹홈의 주출입구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66.7%)가 가장 많으며, 손잡이의 형태는 일자형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문손잡이의 평균 높이는 903.3mm로 나타나 적정높이 900mm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55.6%가 문지방이 존재했으며, 평균 높이는 52.0mm로 타 공간보다 조금 높다. 이는 거실의 출입구의 경우, 현관 부분과 연결이 되므로 다른 공간에 비하여 문지방이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감재는 리놀륨(55.6%), 목재(33.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의 보행에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탄력성, 보온성, 내구성을 갖는 재료로서 목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선행연구(김경일, 1998)의 결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창의 수는 1개가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면적은 3.28m²로 나타났다. 창틀의 평균 높이는 바닥에서 637.1mm 높이에 있어서 침실의 창보다 낮다.

광원의 수는 평균 6.6개로 나타나 타 공간에 비하여 많은 수의 광원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광원의 종류는 삼파장 램프(77.8%)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스위치의 형태는 일반형이 77.8%, 파일럿램프 부착형이 22.2%로 나타났고, 스위치의 평균 높이는 1105.6mm이다.

3) 부엌

부엌-거실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L+DK형이 2곳이며, LD+K형과 LDK형이 각각 1곳이었다. 그리고 작업대는 모두 있으며, 형태는 ㄱ자형은 3곳이며, 一자형이 1곳이었다. 작업대의 평균 높이는 840.0mm로 이것은 여성의 5퍼센타일의 치수를 이용해 산출한 작업대의 최소 높이 793mm보다 높다. 그룹홈에서는 부엌의 가사작업의 경우 고령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보다는 운영자나 생활보조자들이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령자 그룹홈 계획시에는 고령자의 신체 치수의 변화, 특히 신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작업대 높이를 정하거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스스로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창의 수는 평균 2.3개이며, 평균 면적은 1.85m²(조사대상 부엌의 평균 면적: 23.59m²)로 환기를 위한 바닥면적의 5%를 충족시킨다. 창틀의 높이는 평균 1141.1mm로 나타났다. 부엌의 창은 조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기를 위한 용도로 쓰이므로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광원의 수는 평균 6.0개이며, 광원의 종류는 형광등과 삼파장이 사용되고 있었다. 스위치의 형태는 모두 일반형이며, 스위치 높이는 평균 1337.5mm로 나타났다.

환기설비는 모두 기계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환기 기기의 종류는 렌지후드(50.0%)와 환기팬(50.0%)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연료는 모두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스경보장치는 2곳(50.0%)이 없었다. 특히 자립형 형태를 취하는 그룹홈인 경우 가사작업을 고령자가 직접 하므로 주택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스경보장치 설비나 소화기의 설치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노화

에 따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스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엌 연료의 교체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감재는 리놀륨이 75.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부엌의 바닥마감재로는 미끄럽지 않고, 내수성이 있으며, 청소가 용이한 재료가 좋으므로, 미끄럽지 않은 리놀륨 제품이려면 무난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부엌 공간내 단차는 대부분(75.0%) 없었으나, 타 공간과 연결부분에는 75.0%가 단차가 있었으며, 평균 높이는 93.3mm이다.

4) 욕실과 화장실

욕실-화장실의 형태는 통합이 75.0%, 분리가 25.0%를 차지하였으며, 모두 실내에 위치하였다.

출입문의 형태는 모두 여단이었으며, 그 가운데 안여단이(75.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욕실과 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나 밖여단이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출입문의 평균 폭은 816.3mm로 일반적인 규정인 900mm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의 폭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문손잡이의 형태는 노브형(50.0%)과 레버형(50.0%)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특히 욕실이나 화장실의 손잡이는 고령자가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손잡이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문손잡이의 평균 높이는 920.4mm로 나타나 적정높이 900mm보다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의 잠금방식은 모두 안에서 잠그는 형태이다. 그리고 50.0%가 문지방이 있었으며, 평균 높이는 51.7mm로 타 공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창의 수는 1개가 91.7%로 가장 많았고, 평균 면적은 0.61㎡이며, 창틀의 평균 높이는 1418.6mm이다.

광원의 종류는 백열등(58.3%)과 삼파장(41.7%)으로 나타났다. 스위치의 형태는 일반형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높이는 1095.4mm이다.

욕조는 대부분(91.7%)이 없었으며, 욕조가 있는 경우 높이는 550.0mm이다. 샤워기는 75.0%가 있었으며, 평균 높이는 1163.3mm이다. 본 조사대상 그룹홈의 경우 샤워기 높이가 조금 높은 편인데, 고령자들의 경우 샤워기를 사용할 때 서서하기보다는 앉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높이인 650mm 정도로 샤워기의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면대는 41.7%가 있었으며, 평균 752.0m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꼭지는 모두 바형(Bar type)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기의 형태는 모두 양변기이며, 양변기의 평균 높이는 405.0mm이다. 이는 변기의 적정높이인 380mm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 제공되는 고령자 그룹홈에서는 욕실과 화장실 공간의 설비 측면에서의 배려가 요구되어진다.

공간내 단차는 91.7%가 없었으나 타 공간과 연결부분에는 91.7%가 단차가 있으며, 평균 높이는 54.6mm이다. 이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완전히 단차를 없애는 것은 힘들지만 앞으로 계획되는 고령자 그룹홈에서는 공간

의 연결이나 문지방 등의 단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마감재는 모두 타일이었는데, 이는 욕실과 화장실의 바닥마감재로는 미끄럽지 않고, 내수성이 있는 재료가 가장 좋으므로 반드시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끄럼 방지시설은 75.0%만이 있었으며, 욕실과 화장실의 바닥난방도 41.7%만이 하였다.

안전지지대는 33.3%만이 있었으며, 평균 높이는 807.5mm이었다. 비상벨은 16.7%만이 있었고, 평균 높이는 960.0mm이었다. 욕실과 화장실의 안전성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욕실과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이나 온도 변화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높은 공간이다. 따라서 고령자주거의 욕실과 화장실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그룹홈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자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그룹홈 4곳의 입지조건, 평면유형, 각 실의 물리적 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지조건은 교통의 안전성과 보건성, 쾌적성은 충족하였으나 방법의 안전성과 교통과 근린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갖추지 못하였으며, 거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되는 고령자 그룹홈은 방법의 안전성과 교통의 편리성, 근린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고령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면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실별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침실의 경우 문, 창문, 조명에 관한 사항은 양호하였으나 안전에 대한 사항은 매우 열악하였다. 거실의 경우 대부분 양호하나 문지방 높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부엌은 작업대, 창문, 조명, 환기시설은 양호하였으나 안전 확보 관련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욕실과 화장실은 위치, 문, 창, 조명, 마감재는 양호하였으나 타 공간과의 연결 단차, 안전지지대, 비상벨, 바닥난방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규모 고령자 그룹홈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나 도시근교에 너무 크지 않은 규모로 계획하고, 공간의 구성은 2인 1실의 침실과 거실, 부엌 및 공동식당, 개인전용욕실,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접객공간과 예비공간, 마당이나 텃밭과 같은 옥외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배치는 각각의 침실에 개인전용욕실을 함께 두며, 침실에서 거실, 부엌 등의 공용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개인공간은 사생활이 보장되게 구성하되 공용공간은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상벨, 안전지지대, 미끄럼 방지 설비, 문지방, 단차 등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규모 고령자 그룹홈의 생활환경계획에 있어서는 실제 생활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하여 입지조건, 공간규모, 공간구성 및 배치, 동선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일(1998). 여성 고령자의 주공간 이용행태에 관한 인간공학 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산: 영남대학교 대학원.
김현진(1999). 고령자 주택의 평가항목 설정을 위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경산: 영남대학교 대학원.
김현진·안옥희(2006). 고령자 그룹홈의 운영과 거주자의 생활 실태. 한국주거학회지, 17(4), pp. 155-163.
김혜정(2000). 고령화 사회의 은퇴주거단지 디자인. 서울: 경춘사.

박재간(2002).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개발전략. 서울: 아시아미디어 리서치, p. 39.
박태환(1996). 노년건축학. 서울: 보성각, p. 53.
안옥희·정준현·김순경(2002). 개정 주거인간공학. 서울: 기문 당, p. 223.
양세화·박희진·오찬옥(2003).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한국주거학회지, 14(3), pp. 67-76.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 석사학위논 문,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최영배(1993). 건축계획. 서울: 건우사.
통계청(2005). 2005 고령자 통계. 서울: 통계청, p. 2. p. 10.
小室豊允(1992). 老人と住居/노인과 주거. 상형종 역. 서울: 산업 도서출판공사, p. 110.
佳田昌二(1990). 現代の住まい. 東京: 光生館.